光日春秋

김탁환

이야기 산업의 미래

베르나르 베르베르, 오르한 파묵, 요시모토 바나나 등 외국 유명 작가들의 방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소설은 이미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자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스크린 쿼터'는 있어도 자국 소설을 보호하기 위한 '스토리 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나 민족 단위로 소설이 창작되고 유통되던 시절은 지나갔다. 독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으며, 작가들은 적자생존의 냉혹한 시장에서 작품성으로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한다.

영화나 드라마의 원작 역시 국경을 넘어선 지 오래다. '올드 보이', '미녀는 괴로워', '플라이 대디 플라이'의 원작은 모두 일본 작품이다. 영화나 드라마 연출을 희망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일본 만화나 일본 소설 매니아란 사실도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소설이나 한국만화의 판매가 저조한 상황에서도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들과 '신의 물방울', '노다메 칸타빌레' 등의 일본 만화는 날개 돋친 듯 팔렸다. 나날이 성장하는 뮤지컬 시장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뛰어난 소극작용 창작 뮤지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극장용 뮤지컬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 비싼 라이센스 비용을 내고 들여온 작품들이다.

이야기 산업은 스토리텔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콘텐츠로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기존 이야기 산업이 문학, 영화, 연극, 드라마 등 예술을 중심에 두었다면, 디지털 콘텐츠의 발달과 함께 21세기 이야기 산업은 예술 외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게임의 가공할 만한 문화적, 경제적 파급 효과는 이미 확인된 바 있으며, 제품 광고나 기업 광고, 기업 경영과 개인 경영에서도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아직 그 수준이 탁월하진 않지만 이야기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졌으며, 이야기를 단순히 보고 듣고 읽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오감을 통해 온몸으로 이야기 자체를 즐기는 가상현실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척 되었다. '이야기 말하기(story-telling)'의 수준을 넘어 '이야기 하기(story-doing)'의 차원까지 넘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공간은 이야기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웹사이트의 블로그나 게시판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사라진다. 이들은 종이책을 통한 이야기와도 다르고 전자책에 담긴 이야기와도 다르다. 다양한 주제에 동시다발적으로 모여 떠들며, 댓글을 통해 그 이야기의 장단점을 같은 공간에서 논박하고, 또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혹자는 제2의 구술문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도 하고, 혹자는 작가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독자가 이미 완성된 이야기를 받아들이던 단계를 벗어나 작가이면서 동시에 독자인 네티즌들이 만드는 새로운 이야기의 출현을 확신하기도 한다. '세컨드 라이프'는 인터넷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가꾸어가는 일이 가능함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현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거리를 두는 그 '틈'과 그 '사이'에서 낯선 이야기들이 명멸한다.

이야기에 대한 미학적 가치가 우선시되던 시절도 지나갔다. 어떤 이야기는 여전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지만 어떤 이야기는 정보를 간명하게 전달하는 도구이며 어떤 이야기는 디지털 기술을 구현하는 작은 역할에 머무른다. 구조주의가 학술활동을 규정하는 하나의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방법론으로 인정받았듯이, 이야기도 개별 학문의 영역으로 쪼개져 논의될 것이 아니라 여러 학문을 포괄하고 융합하는 보편 영역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 이야기는 예술이나 공학이나 경영학이나 인문사회학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종횡으로 아우르는 크고 변화무쌍한 강줄기에 가깝다.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동물이다. 디지털은 소멸하는 이야기들을 더 오래 더 빨리 더 쉽게 만들고 간직하는 길을 터놓았다. 이야기로 과연 무엇까지 할 수 있을까. 이야기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진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소설가·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정부·국민 힘모아 고유가시대 대처하자

국제유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기름값은 전문예측기관들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배럴당 130달러에 달한 국제유가는 수요 증가와 달러화 약세, 일부 산유국의 정정 불안 등으로 조만간 150달러 선을 넘어서고 2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ℓ당 2천원을 돌파했다. 불과 1년만에 2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경유값은 휘발유값의 85% 수준으로 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휘발유값을 앞지르고 있다. 산업계는 물론 국민생활 전반에 '빨간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고유가 시대를 극복해낼 전략은 마땅치 않다. 정부는 어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경유값 대란'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지만 속 시원한 방안은 없었다. 검토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과 유가 보조금 기한 연장 등은 도산 위기에 몰려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농어민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

국제유가 상승세를 막을 방법은 없다. 기름을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고유가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해외자원 확보나 대체에너지 개발 등은 장기 과제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야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에너지 낭비 사례는 수두룩하다. 거리에는 대형차 홍수에 '나 홀로' 출퇴근 차량이 넘쳐난다. 과도한 냉난방과 불야성을 이루는 도심의 네온사인 등 곳곳에서 에너지가 새고 있다.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경제가 흔들려선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실효성 있어야

정부가 28일 다음달부터 모든 식당은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밝혀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돼지고기·닭고기·김치류도 연말께부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을 계기로 날로 증폭되는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먹을거리 원산지 표시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확대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많은 국민은 정부가 원산지 표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수입업체들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할 것이란 불신감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유명 대형음식점에서조차 소비자를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중요한 것은 수입된 농·축산물이 어느 유통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다. 아쉽게도 이번 개정안에는 유통 경로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빠져 있다. 현재의 통관·유통 시스템으로는 수입업자가 얼마든지 국산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단속의 실효성도 문제다. 광주·전남지역의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은 48명에 불과하다. 현실이 이런데 원산지 표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위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반업체는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함을 보여 줘야 한다.

정부는 다음달 1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Kisti의 과학향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태형

안드로메다 지구 향해 돌진

지난 4월 미항공우주국(NASA)은 허블우주망원경 발사 18주년을 기념해 허블사이트(hubblesite.org)에 다양한 은하충돌 사진들을 공개했다. 1천억 개 이상의 별이 모여 있는 거대한 은하들이 충돌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격정적인 순간들을 보여준다.

20세기에 밝혀진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는 빅뱅 이후에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따라서 은하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멀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욱 빠른 속도로 멀어져가고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 우주론, 즉 우주 팽창 이론이다. 그런데 왜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지 않고 충돌하는 것일까?

모든 은하가 서로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은하로부터 500만 광년 거리 내에 있는 은하들을 국부 은하군(群)이라고 하는데, 이 은하들은 서로를 잡아당기는 인력 때문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주 팽창 이론에서 말하는 멀어지는 은하는 국부 은하군에 속하지 않는 은하, 즉 서로의 중력이 작용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을 말한다.

보통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몇 광년 정도로 은하들이 충돌한다고 해도 별과 별이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주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은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단 4%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다. 은하들이 충돌할 때 이런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충돌하기도 하고, 별과 별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성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수많은 별들을 만들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미 항공우주국(NASA)은 은하 중심의 블랙홀에서 방출된 방사능 입자들이 인접한 은하와 충돌하는 모습을 최초로 관측했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은하들은 그 중심에 태양 질량의 100만 배에 가까운 거대한 블랙홀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블랙홀은 모든 물질을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블랙홀 주변에서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감마선과 X선과 같은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된다. 이것을 제트(Jet) 에너지라고 하는데 은하 충돌 시에 거대한 블랙홀에서 방출된 이 에너지들은 수천 광년에서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까지 분출되기도 한다. 만일 이 같은 에너지들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오존층과 자기장이 파괴되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안드로메다은하가 우리은하에 접근하는 속도는 초속 100㎞ 이상이다. 이 속도로 두 은하가 접근한다면 앞으로 약 30억년 후에는 서로 충돌하게 될 것이다. 충돌할 경우 우리은하계에 어떠한 생명체도 존재하기 힘들어질지 모른다.

비록 은하는 아니지만 길이 1만 광년 정도 되는 거대한 우주 구름이 우리은하를 향해 접근하고 있다는 관측결과도 발표됐다. 스미스 구름이라고 알려진 이 성운은 약 수 천만년 후에 우리은하의 한쪽 귀퉁이에 충돌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블랙홀을 가진 은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충돌로 인해 우리 지구의 생명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은하의 충돌이 우주의 큰 변화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하지만 그 충돌을 걱정하기 보다는 우주의 자연스런 변화로 받아들이고,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민천문대장〉

기고

최현주

미래는 저탄소가 국가경쟁력

지구 온난화는 지구촌의 최대 과제이다. 지구 온난화는 경제, 유통, 에너지 사용 등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량은 세계시장에서 물건처럼 돈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 환경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세계 모든 나라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계획이 담긴 발리 로드맵을 채택했다. 교토의정서 이후(2012년 이후)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기로 했다. 우리도 관망 자세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감축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6위, 배출량 증가율 1위로 기후변화 대응수준이 낮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진통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라도 총력을 기우려 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10일에는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시를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시범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먼저, 2005년부터 추진해 온 1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 2004년 10월 선언한 태양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해 가고 있으며, 2001년부터 천연가스 버스 보급 사업을 펼쳐 2010년까지 1천153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등록해 배출권(CERs)을 확보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위생매립장의 매립 쓰레기를 연료로 한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Eco-폐기물 제로화 에너지 타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광주시는 2015년까지 2005년도 배출량의 10%(66만t)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39%가 가정·상업에서 발생되고 있어 각 가정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생산과 소비활동 전반을 이끄는 시민 개개인의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대목이다.

광주시는 가정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했다. 에너지 절약노력을 통해 감축시킨 온실가스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소비량이 많은 백열전구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백열전구 퇴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업체, 사무실, 건물, 행사 등 모든 활동으로 인한 탄소발생을 제로화하기 위해 발생시킨 온실가스량 만큼의 나무를 심거나 기금을 기부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런 제도는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등의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 자녀와 후손에게 '썩 괜찮은 미래'를 안겨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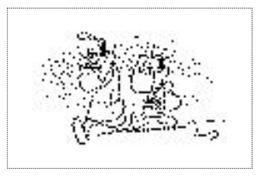
〈광주시 환경녹지국장〉

無等鼓

황사

봄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황사는 중국과 몽골 내륙지역에 걸쳐 있는 건조한 사막지대에서 발생한다. 모래 먼지가 지상 4~5㎞ 상공까지 도달한 후 강한 기류를 타고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미 서부지역까지 날아간다.

황사로 인한 피해는 태풍 등 자연 재해와 맞먹는다. 황사가 극심했던 지난 2002년에는 무려 17조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황사는 항공회사에도 골칫거리다. 황사가 심할 경우 비행기 운항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비행기 세척도 자주해야 한다. 비행기 동체에 묻은 황사가 지상에서 습기와 반응하면 강한 산화물로 변해 표면을 부식시키며 양력(물체를 끌어 올리는 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황사는 법적으로 재난에 속한다. 자연재해대책법 2조에는 재난의 한 종류로 분류돼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이 환경안보 차원에서 황사를 줄이기 위해 공동 대처에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황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황사 발원지인 중국 내륙지방의 사막화를 막으려면 남한 면적의 40배가 넘는 광활한 지역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다행히 올해는 황사가 예년보다 적게 발생했다. 평년보다 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난 4월까지 황사 발생일수는 2.2일로 평년값인 4.1일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황사가 우리나라에 적게 날라든 것은 바람 덕분이다. 중국이나 몽골에서 우리나라로 향하는 북서풍이나 서풍이 적은 대신 동풍과 남서풍이 자주 나타나 우리나라를 피해 간 것으로 분석된다.

황사 발생이 줄어든데다 여름으로 접어들었다고 해서 안심은 금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지난 27일에도 북경시 전역에 황사가 발생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황사는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재난이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

편법 마케팅·사재기 등 책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여전

베스트셀러 책들이 조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무리한 마케팅과 서점의 매대 판매로 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재미 없는데 어떻게 베스트셀러인가 하는 의문과 불만을 담은 항의성 글들이 많다.

대형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라고 이름 붙인 책들 중 출판사의 편법 마케팅이나 사재기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게 적잖은 것이다. 그것이 예전에는 사재기를 통해 이뤄졌지만 요즘은 출판사가 저자 사인회를 열고 그 현장에 자체적으로 동원한 사람들이 책을 대량 구입하는 방식을 쓴다는 것이다.

독자들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현혹되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해 올바르게 양서를 구입하는 지혜를 발휘하면 이런 편법 베스트셀러 만들기와 독서시장의 왜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나혜성·광주시 서구 서창동

의외로 많은 '황혼 폭력' 예방대책 세워야

며칠전 동생 집에 갔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이웃에 칠순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가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폭행한다는 것이다. 그날 필자가 갔을 때도 다투는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한 할머니가 대문 밖으로 쫓겨나와 한참을 서성였다.

황혼이혼을 부추기고, 또 황혼이혼에 버금갈 만큼 충격적인 세태적 흐름이 바로 이 황혼 폭력이다.

남편에게 맞으면서도 이혼하지 않고 살아온 할머니들은 대부분 이혼은 죄악이라고 여기거나 이혼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다. 특히 늙고 병든 몸, 의지할 곳도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너무 오랬동안 폭력을 당해 익숙해지기까지 하다.

가족과 가정이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봤을 때 황혼 폭력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황혼 폭력의 예방과 가정보호를 위해 적절한 캠페인을 펼쳤으면 한다.

▲박종심·목포시 동명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